

중요 시기 경력단절 안돼 vs 평범한 청년들 박탈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체능계 병역특례

아시아게임 1위하면 특례혜택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는 예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시끌
국위선양의 모호한 기준 논란



1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축구 시상식에서 한국 손흥민과 이승우 등 선수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체능계 병역 혜택 논란이 뜨겁다. 운동 선수와 유명 가수의 병역특례 논쟁이 벌어지면서, '군대는 일찍 성공하지 못한 남자가 끌려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굳어진다. 각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젊은이들의 경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칙권은 "특례 기준 고치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화두는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였다. 특히 외신과 국내 팬들은 축구 선수 손흥민(26·토트넘)의 병역 면제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게임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병역 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29명이 축구 또는 야구선수다.

야구의 경우 WBC(월드 베이스볼 클

래식)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으로 출전하는 일본과 대만을 꺾으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활약해 온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가 한일전에 달렸다는 사실도 문제로 거론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내외 예술 경연 1~3위에 입상하거나 올림픽 대회 3위, 아시아경기대회 1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지만, 기본 군사훈련을 받은

뒤에는 프로 선수로 계속 활동하면 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가 사실상 군 면제로 불리는 이유다.

운동 선수들의 병역 특례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자, 병무청은 3일 병역 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병역 특례 형평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고전 음악 콩쿠르 1위는 병역 특례를 받지만,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예외인 점을 문제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로또에 가까운 현행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선수가 은퇴 후 재능기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젊을 때 성공 못하면 입대" 박탈감 대책 필요

반면 현행 병역 특례 제도 자체가 평범한 젊은이를 주눅들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능과 운이 일찍 피어나지 못한 20대가, 또래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군대에 간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국방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대학생 임기혁(26)씨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이미 최고의 명예와 이후 이어질 경제적 이익까지 얻게 됐다"며 "여기에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혜택을 주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위모(32)씨도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는 선에서 현행 병역 특례에 찬성한다"면서도 "운동 선수와 아이돌을 떠나, 그 사람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시기에 국가가 강제로 군대로 불러들이지 말고 징집 연령대를 늦추는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병역 혜택 확대 반대 글로 가득하다. 청원자들은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인의 성과는, 기

획사의 자본이 가수의 사의 추구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국가대표 선수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역 특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청원도 늘어나고 있다.

전세계가 촘촘히 이어진 '초연결사회'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 민간외교이자 국위선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끊이지 않는 군 면제 논란을 두고, 학계에서는 '국위선양'에 대한 제정의와 지역 사회 중심의 재능기부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대에 세계 주요 산 정상에 연달아 정복하거나, 오토로 대양을 건너도 국위선양이 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손흥민 선수의 경우 은퇴 후 울릉도 같은 섬이나 시골 마을에 머물며 현역병 복무기간의 2.5배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은퇴 후 현역의 두 배가 넘는 기간동안 재능 기부 하겠다는 선수들을 심사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선수의 재능을 젊은 시절 펼치게 하면서도 현역 입영 기피에 징벌적 성격을 더해 형평성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병준 기자 joker@metroseoul.co.kr

폭염·폭우에 추석물가 빨간불 배추·무 값 일주일 새 10% ↑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1.4% ↑
누진제 완화로 물가는 1%대 유지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 1.4%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째 1%대다.

8월 소비자물가는 폭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먼저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14.4% 올랐다. 농산물 중에서도 채소값이 30% 뛰었다. 채소값 30% 상승은 2016년 9월(33.2%)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배추(71.0%)와 수박(63.2%), 시금치(128.0%), 무(57.1%), 파(47.1%), 상추(40.5%), 양배추(85.5%)가 전월대비 크게 올랐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수박(31.1%)과 복숭아(29.0%), 무(24.4%), 시금치(22.0%) 가격이 상승했다. 폭염은 과일(9.0%)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폭염과 폭우로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추석 물가도 불안한 모습이다. 정부는 오르는 채소값을 잡기 위해 배추·무를 사들여 방출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한 상황이다.

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채소가격은 총 4.1% 상승했다. 단 일주일 사이에 조사대상 21품목 가운데 15개가 올랐고 6개만 가격이 내렸다.

가장 큰 폭 상승한 품목은 대파로 일주일새 가격이 23.7% 올랐다. 이어 호박(18.2%)과 무(14.4%), 생강(11.4%), 배추(9.9%), 상추(7.5%) 순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정부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에 풀었던 무와 배추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 줄기없는 무 1개가 3742원으로 1주일 전보다 14.4% 올랐고 한달 전보다 42.3% 올랐다. 배추 1포기도 7717원으로 1주일 전보다 9.9%, 한달 전보다 54.4% 뛰었다.

배추와 무는 폭염·가뭄과 8월 고온·폭우 등 산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배추 3000톤(t)과 무 1000톤을 긴급 수매해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추석 전까지 매일 배추 100톤과 무 30톤을 전국 500여개 농협 매장에서 시중가보다 40~6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생선류도 1주일새 가격이 0.6% 올랐다. 고등어가 18.4% 올랐고 오징어도 0.3% 올랐다. 반면 갈치(-4.6%), 참조기(-0.8%), 삼치(-0.6%)는 내렸다.

해양수산부도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8439톤을 방출한다. 품목별로는 명태(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등)이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달걀,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3.9% 하락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

판교 벤처거리에 국내 첫 자율주행 버스

경기도 제작 '제로셔틀' 첫 선

혼잡시간 제외 4회 시범운행
유리재질로 보행자와 소통 가능
후면 센서 부착... 차간거리 조정
차량들과 혼재돼 운행 문제없어

"차량 앞뒤에 부착된 센서와 위치기반 시스템이 자동차의 움직임을 좌우한다. 운전자가 없어도 도로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주행이 가능하다."

무인 자율주행 버스인 '제로셔틀'이 국내 서 첫 선을 보였다.

경기도는 4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앞 광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제로셔틀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어릴 때 만화로만 보던 꿈같은 상상이 현실이 됐다"며 "경제와 복지는 물론, 미래비전에서도 가장 앞선 경기도를 만들겠다. 앞으로 판교가 대한민국 첨단산업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로셔틀은 경기도가 지난 2016년부터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제작한 11인승 자율주행차량이다. 국내에서 운전자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제로셔틀이 최초다. 레벨4는 완전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말한다. 차량 스스로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다.

차세대융합기술원 김재환 박사에 따르면 차량은 유리재질로 만들어져 보행자와 소통이 가능하게 했으며 후면에 센서가 부착돼 있어 차간거리 조정이 가능하다. 경로 및 속도조절 기능도



일반도로를 주행 중인 제로셔틀

/정연우 기자



자율주행 버스 제로셔틀의 내부 /정연우 기자

갖추고 있다. 크기는 길이가 5140mm, 전폭 1880mm, 전고 2700mm, 중량은 2780kg이다. 1회 충전 시 4시간을 주행할 수 있다. 충전시간도 4시간이 소요된다.

핸들과 액셀, 브레이크 페달은 없지만 차량사물통신 기술인 V2X(차량과 사물간 통신)가 구축돼 통합관제센터와 교통정보, GPS 위치정보, 신호, 주행안전정보 등을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김재환 박사는 "V2X통신을 이용한 주행 알고리즘이 있어 일반차량과 혼재돼 운행이 가능하다"며 "안전요원이 동승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제어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과 합의해 운행구간 내 교차로 신호제어기 12대를 교체하는 등 교통신호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판교역 등 운행구간 주변에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을 알리는 도로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했다. 교통인프라와 연계된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센서에 들어가는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계절의 영향을 받아 날씨가 추워지면 효율이 떨어져 악천후에는 주행할 수 없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시범운행은 평일 출퇴근 및 교통혼잡시간을 제외한 오전 10~12시, 오후 2~4시 사이에 4회 이내로 한다. 날씨 등 운행환경에 따라 운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탑승은 11월부터 가능하다.

경기도는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에 3.8km 길이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위한 도로를 조성 중이다. 자율주행 실증단계는 오는 2019년말 완공 예정이다.

/판교(경기)=정연우기자 yw964@